

소리에 묻혀 '나' 잊고 산 65년

산문박의 禪

경기민요 무형문화재 목계월씨

"내가 소리를 이끌어 왔는지 소리가 나를 묻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65년이 지났군요. 후회없이 지내 온 지난 날들이라 뭐 그리 대단할 감회도 없구요. 다만 나이가 들수록 무대에 서기가 더 힘들고 어깨가 무거울 뿐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민요·잡가 등의 소리에 이끌려 왔는지 자신이 소리의 삶을 이끌어 왔는지조차 모르며 살아 왔다는 목계월(75·경주무형문화재 57호 기능보유자)씨가 지난 16일 오후 7시 호암아트홀에서 65년 소리를 정리하는 무대를 가졌다. 목씨는 10살 때까지 무대에 올랐던 흥얼흥얼 노래부르기를 좋아했고 11살 때는 기어코 수양어머니에 이끌려 소리 배우는 길로 들어섰다. 그후 65년이 지난 것이다.

"천상 나는 소리 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다른 기악이나 율 춤 배워 보려고 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기계 내 전부이거니 하며 소리만 따라

했다. 이번 무대론인해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고 싶었던 것이 목씨의 속마음이었던 것이다.

"소리의 길이 끝이 없는데 인간의 생은 끝이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주어진 생명이 있는 한 소리를 할 것입니다. 내 생명이 끝나도 누군가 또 그 소리의 길을 이어갈 것이니까 가능한 내가 더 길게 그 길을 잡아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대에 오를 때면 가슴이 떨려 '청심환'도 먹는다. 목씨지만 막상 장고반주에 맞춰 경기민요나 잡가가 시작되면 모든 것을 잊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목씨는 "소리꾼은 소리 속에 들었을 때 가장 편안한 겁니다"라는 말로 스스로의 경지를 표현했다. '소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묻자 목씨는 잠시 눈을 감더니 함께 대답했다.

"내가 그냥 소리가 되어 버리는 거야."

악보도 녹음기도 없던 시절, 한 소절을 배우고 돌아와서는 다 잊어 버리고



심화·이기선

살생이란 말도 하지 말자

원효는 살생에 대하여 상품 중품 하품의 3품으로 나누어 경중을 밝히고 있다. 상품의 중생이란 부모와 수행의 지위가 확정된 지상의 보살과 모든 번뇌를 끊어서 배울 것이 없는 아라한을 일컫는다. 만일 이 상품을 살해한 자는 무거운 죄와 오명의 두가지를 범한 것이다. 만일 이 과위를 얻는 이를 두고 말한다면 열반경에 상·하의 두 곳의 글이 같지 않으니 첫글에 의하면 기바가 아세사유에게 말하기를 '네가 두가지 죄를 범하였다'고 하였으니 수다원과를 얻은 아버지 범비사라왕을 죽였음을 일컫는다.

중품은 정해서 말할 수 없는 데 사람은 다 여기에 해당한다. 중품을 죽인 자는 오직 무거운 죄를 범한 것이고 역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또 하늘을 중품으로 보는 것을 대승에 한하여 그런 것이 며 소승인 경우에 하늘을 죽인 자는 오직 가벼운 죄 즉 경구죄를 범한 것일뿐 무겁고 큰 중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항상 참회하는 생활

만일 사람이라 해도 갖된 사상을 가진 자를 죽이는 경우, 대승 지상의 대보살이라 하면 죄가 없고 도리어 복이 될 뿐이지만 만일 새로 배우는 보살이라면 가벼운 죄를 범한 것으로 되고 하늘이나 사람 아닌 것을 죽이면 참회함으로써 죄를 씻는 타죄(타罪) 곧 바일죄를 범한 것이 되며, 죽음을 죽인 경우에는 제 6취인 돌갈라죄를 범한 것이 된다고 밝혀 살생하는 대상에 따라 상·중·하품 세 종류로 나누어 살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짐을 밝히고 있다.

소스로 죽이는 법계 가운데 다섯가지 구별이 있으니 죄를 이름에 가법고 무거운과 대소

승의 같고 다름이 있다. 첫째 상대가 사람이란 판단을 하고서 저질렀으면 대·소승이 다 같고 중계를 범한 것으로 본다. 그것은 그 마음과 대상이 다 중계에 상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

죽음을 유도하는 말
찬탄하여 죽게 하는 것에는 셋이 있으니 첫째는 신행을 닦는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어서 죽어라. 만일 오래 살다보면 원수와 허물을 지어 나쁜 생각으로 나쁜 업을 짓게 될지 모를 일이지 아니겠는가? 하여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좋

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

게 말하기를 '나는 이제 나쁜

것을 하여 죄를 조금 지었을

때 지금 어서 죽어라. 만일

살다보면 나쁜 업을 더 많이

지어 죄만 더 커질 것이 아니

냐? 라고 하여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곧 죽음을 말한

다.

셋째는 노인과 병든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오래 살면 오

래도록 괴로울 뿐이니 차라리

빨리 죽어서 그 괴로움을 여

의는 것만 못하다' 라고 하여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죽었

음을 말한다. 찬탄하여 죽게

하면 그 죄는 중죄이니 대승

이나 소승이나 다 같이 중죄

를 범한 것이다.

살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다 함은 살인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기뻐하는 나의 마음을 보고

그로 인하여 살업을 짓게 되

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생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도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

"외 토하는 고통 있어야 제대로 된 소리 나와요" "得音경지는 끝없는 길"... 내가 곧 소리될 때 도달

살았어요."

목씨는 소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몽당치마의 어린 시절이었으므로 피를 토하고 목이 붓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후회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옹골차게 자신이 택한 길을 달려 온 것이 지금은 여간 자랑스런 일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얼얼할 여름철 때쯤에 주위의 어른들이 득음(得音)을 했다고 칭찬해 주시더군요. 그러나 어디 가량한 일이었습니까. 겨우 7~8년 소리 배워서 득음을 했다던 너무 실망했다는 뜻일거예요. 장단고저를 자유자재로 쓴다는 것이 득음인데 그 경지는 아직 아무도 못 다다른 곳입니다. 다만 칭찬하느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지요."

목씨는 어쩌면 스스로 득음의 경지를 부정하며 끝없는 소리의 길에 대한 뜨거운 정열이 아직 조금도 식지 않았음을 역설하는지도 몰랐다. 목씨는 공언을 앞두고 일부 언론들이 '고별무대' '결산무대'란 말을 썼던 것을 섭섭해

다음날 다시 선생님께 혼잣말이 하면서 한 소절을 더 배우며 12잡가와 경기민요에 '삼설기'까지 목을 통해 버린 목계월씨.

특히 목씨는 '삼설기'를 전수받은 유일한 예인이다. '삼설기'란 송서부의 일종으로 글을 읽는듯이 읽어 나가되 음정과 박자가 있어 노래에 가깝다. 그러나 글 읽기와 노래가라의 중간쯤에 있는 것이 '삼설기'인데 이것은 배우기가 매우 까다로운 전수자가 흔치 않다.

무대에 올라 소리하는 사람이 바로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도 쉬운' 자리까지 오르지 않으면 안된다. 자신 있게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야 자신이 소리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음악이란 길고 짧고 높고 낮은 것의 이치에서 비롯된다. 그 장단고저에 부여된 하나의 질서가 곧 한 가락의 노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네가지 요소가 부리는 조화속이랑게 말도 끝도 없이 다양하게 사립이다. 그래서 음악은 시대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또 잊혀지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다.

여생을 후학양성 위해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이름을 알지 않고 백을 지켜 온 것 중의 일부가 경기민요이고 경기잡가입니다. 나는 그것을 팔자로 타고나서 이렇게 평생 부르고 살고있고요. 따지고 보면 아주 초라한 이승 인연의 실오라기일 뿐이겠지만 한 평생을 한 일에 몰두해 살아 온 것은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아직 마무리를 얘기하기에는 열정이 너무 많이 남은 목씨는 '내가 주어진 무대가 있다면 죽는날까지 서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자신의 길이 아직 창창히 남았음을 암시하는듯 했다.

10여명의 문하생들과 동료들이 한 무대에서 가을밤을 훈훈히 장식한 목계월씨의 '끝없는 소리의 길' 공연은 이제 목씨에게 아쉬움도 두려움도 없는 소리의 길을 열어 줄 것이다.

"문득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생각납니다. 이문원선생님 김운태선생님 최정식선생님의 모습이 새삼 떠오르는 것은 제가 그분들이 남긴 길을 이만쯤 이었다는 자랑이라도 하고 싶어서일까요."

아직 더 긴 여정의 소리 길을 걸어야 할 목씨는 자신이 취입한 노래를 들으며 "여기는 내가 안 부른 것같이 잘 됐구만" 하곤 한다. 씩 맘에 들게 잘 된 부분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목씨는 그 잘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 부분이 바로 내가 소리가 되어버린 곳이야."

임연태 기자

"윤달 수의는 준비하셨습니까?"

고품질의 수의를 시중가계의 절반으로 보급합니다

불교인의 장례는 불교의식에 따라 불자들의 손으로

대한불교 연화회
장의부(대) 732-9618
호출 012-220-1631 휴대 011-335-9614 불교 장례에 관한 모든 것을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국책사업 연구원 및 영업사원 모집

한일과학기술연구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아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창의력과 불심(佛心) 있는 인재를 초빙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자격

모집부문	학 력	제출서류	모집인원
전기, 전자, 소재 computer, IT 등	각 부문 고졸, 대졸, 석사, 박사 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최종학교성적 증명서(신입에 한함) 각 1통	신인 00명 경력 00명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전형방법
서류전형 후 면접(면접일자 개별통지)

3. 제출일자
~ 1995년 9월 25일까지(우편 소인 날짜 유효)

4. 제출처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112-2 ☎ 110-410
해운항만청 별관 1층 105호
Tel. 744-1109 / Fax. 742-1109

한일과학기술 연구소
마하반야바라밀

운명의 길을 열어주는
보살기(氣)띠부적 메달

띠부적이란?
인간은 누구나 12간지에 따라 12년을 하나의 주기로 운명의 변동을 합니다. 12년마다 되돌아오는 자신의 운명지수의 변동을 인연보살 천지인의 기도로 천운의 길로 돌려놓는 불가사의한 무적입니다. 각 띠부적으로 자신의 계도를 미리 알아 매사를 성사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 띠부적매달본

- 앞면 (보살상)
- 뒷면 (띠별12지상)

(子) 쥐띠(인월보살) 甲子生, 丙子生, 戊子生, 庚子生, 壬子生	(午) 말띠(여의문보살) 庚午生, 壬午生, 甲午生, 丙午生, 戊午生
(丑) 소띠(천수보살) 乙丑生, 丁丑生, 己丑生, 辛丑生, 癸丑生	(未) 양띠(대제보살) 辛未生, 癸未生, 乙未生, 丁未生, 己未生
(寅) 범띠(대풍보살) 丙寅生, 戊寅生, 庚寅生, 壬寅生, 甲寅生	(申) 원숭이띠(심원보살) 壬申生, 甲申生, 丙申生, 戊申生, 庚申生
(卯) 토끼띠(수월보살) 丁卯生, 己卯生, 辛卯生, 癸卯生, 乙卯生	(酉) 닭띠(군대보살) 癸酉生, 乙酉生, 丁酉生, 己酉生, 辛酉生
(辰) 용띠(관세음보살) 戊辰生, 庚辰生, 壬辰生, 甲辰生, 丙辰生	(戌) 개띠(정후보살) 甲戌生, 丙戌生, 戊戌生, 庚戌生, 壬戌生
(巳) 뱀띠(관자재보살) 己巳生, 辛巳生, 癸巳生, 乙巳生, 丁巳生	(亥) 돼지띠(미타보살) 乙亥生, 丁亥生, 己亥生, 辛亥生, 癸亥生

■ 순은 (99%) 약 7돈(26.25g)
■ 가격 ₩ 48,000 (세인 포함)

기회제작 **三田佛事** (02) 732-6095 732-6096
* 콜로버서비스전화 080-023-1101(요금수신자부담)

신라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행운의 황금종
국보 제29호 에밀레신종

신비롭고 영험 있는 에밀레종!
종소리가 맑고 청아하여 그 긴 여운은 영원으로 이어져 고뇌하는 이에게 희망과 마음의 평온 그리고 행운을 드릴 것입니다.

■ 규격: 가로 258 x 세로 258 x 폭 200(mm)

■ 보급특가 ₩ 148,000

三田佛事 (02) 732-6095 732-6096
* 콜로버서비스전화 080-023-1101(요금수신자부담)